

주말경제

Economy

재무레버리지 효과?

■ 중학생 두딸을 둔 40대 중반 자영업자, 향후 재무설계는?

노후대비는 월 100만원 '변액연금보험'으로

Q

45세의 가장으로 중학교 3학년과 1학년생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집안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또 경기 에 민감한 업종이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무상담을 신청합니다. ▲매월 소득 중 쓰고 남는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에 적립하는데 MMF 통장 잔고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들 대학 학자금도 미리 준비를 하고 싶고, 우리 부부의 노후도 좀 더 윤택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A

의뢰인 진씨는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몇년 후 내 집을 마련한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가장이다.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들과 달리 뇌적금이 없을 뿐 아니라 수입도 일정치 않아 재무설계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업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므로 미래를 위한 소중한 부분에는 자투리의 시간조차도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꼭 행해야 할 재무설계 원칙부터 짚고 싶다.

첫째, 비상예비자금의 준비다. 자영업은 수입이 일정치

한다. 흔히 말하는 재무레버리지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셋째, 위험 관리다. 보험이라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준비가 가능한 시점부터 대비하는 것이 좋다. 진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금액은 가족들의 생활수준을 감안할 때 부족한 면이 있다. 자녀 자립시기에 맞춘 정기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월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1억5천만원의 추가적인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후에 대한 대비다. 직장인들에게 노후를 위한

비상예비자금은 1,500만원이면 충분 MMF 5천만원 학자금 용도 전환을

않아 현금흐름이 불규칙할 경우(매출감소, 사업자의 질병 및 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진씨가 보유중인 금융상품 중 보통예금 통장과 MMF가 이런 종류의 자금인데 만약 두 가지 금융상품이 모두 비상예비자금이라면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생활비와 사업을 고려해 2천만원 정도만 MMF에 넣고 나머지는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다.

둘째, 부채 관리 문제인데 진씨는 빚이 전혀 없는 상태임으로 논외로 하겠지만 부채도 적절히 활용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너무 배제해서도 안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빚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자는 부채를 적절히 활용할 줄도 알아야

최후의 보루인 퇴직금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아무 것도 없다. 국민연금을 믿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진씨의 경우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 들었으나 미래가 불안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노후준비를 해야한다. 자영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자의 등장, 인건비 상승, 세금부담 등으로 독점적인 이윤이 줄어들기 마련이고 나아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노후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금 관리다. 최근 자영업자에 대한 세율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세금을 줄이려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5년마다 시행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도 충실히 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용계좌 등 변경된 세법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기업에 타인자본, 즉 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고정적인 금융비용의 지급으로 인해 영업이익의 변동,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게 되는데, 이를 재무레버리지효과라고 한다.

즉 타인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가 지불되는 역할을 해 영업이익의 변화에 대한 주당이익의 변화폭이 더욱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런 재무레버리지효과는 부채의 정도와 자본의 조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또 동일영업이의 수준에서는 타인자본 비율이 큰 기업일수록, 동일자본구조 아래서는 총자본 영업이익률과 총자본 이자비용률이 균형된 영업이익수준에서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재무레버리지효과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기업은 차입이나 우선주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보통주 발행에 비해 큰 주당이익을 가져온다.

〈이번주 재테크 자문단〉

최해영CFP
(교보생명)박재원CFP
(세무사)윤상원CFP
(대한생명)

◇이번주 상담자 : 최해영CFP(교보생명), 박재원CFP(세무사), 윤상원CFP(대한생명)

◇재산 리모델링 신청방법(신청시 연락처 기재)

▲이메일을 통한 신청방법 : chy69016@naver.com, bungy@kwangju.co.kr

▲팩스를 통한 신청방법 : 062-524-4187, 062)222-4918

▲'다음카페'를 통한 신청방법 : www.cafe.daum.net/fpporum(광주FP포럼)

진씨의 자산현황

변경전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보통예금 1,500만원	
MMF 5,000만원	
대여금 5,000만원	
주거용주택 10,650만원	
임차보증금 15,000만원	
계 37,150만원	0만원
순자산 37,150만원	

변경후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CMA 1,500만원	
펀드 10,000만원	
주거용주택 10,650만원	
임차보증금 15,000만원	
계 37,150만원	0만원
순자산 37,150만원	

변경전 portfolio 수익률

구분	금액	기대수익률	portfolio수익률
보통예금	1,500만원	1.00%	0.13%
MMF	5,000만원	4.00%	1.74%
대여금	5,000만원	0.00%	0.00%
계	11,500만원		1.87%

변경후 portfolio 수익률

구분	금액	기대수익률	portfolio수익률
CMA	1,500만원	4.00%	0.52%
국내주식펀드	3,000만원	7.00%	1.83%
부동산펀드	3,000만원	8.00%	2.09%
해외펀드	4,000만원	7.50%	2.61%
계	11,500만원		7.05%

변경전 현금흐름표

수입	지출
사업소득 700만원	생활비 250만원
	교육비 160만원
	보장성보험료 23만원
	변액유니버설 90만원
	변액연금 20만원
	보통예금 157만원
계 700만원	계 700만원

변경후 현금흐름표

수입	지출
사업소득 700만원	생활비 250만원
	교육비 160만원
	보장성보험료 33만원
	변액유니버설 90만원
	변액연금 120만원
	적금식펀드 47만원
계 700만원	계 700만원

할 것이다.

◇MMF 예치금과 대여금 1억원을 4~6년 굴려 자녀 교육자금으로 활용하라=진씨에겐 향후 4~6년후에 두 자녀의 대학자금 및 유학자금, 12~14년후 자녀 결혼자금과 20년후(의뢰인 65세 시점)부터 필요한 부부의 은퇴자금 등 크게 세 가지의 중대한 재무목표가 있다. 자신의 구성 및 저축 역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먼저 보통예금 1천500만원은 일상자금 및 비상예금으로 금리가 다소 높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통장으로 전환할 것을 권한다. 또 MMF에 예치돼 있는 5천만원은 두 자녀의 대학 학자금용도로 목표를 정해 4~6년 정도의 목표기간을 설정하고 다음 표와 같은 형식으로 분산투자하기를 바란다.

투자금액 1억 투자대상

구분	투자금액	기간	예상수익률	목적
국내주식형펀드	3,000만원	7%		
부동산펀드(글로벌)	3,000만원	8%		자녀 대학 및 유학자금
해외펀드(일본)	2,000만원	7%		
해외펀드(중국)	2,000만원	8%		

(MMF액 5천만원과 대여금 5천만원을 합한 금액)

◇노후자금 마련위해 월 100만원씩 변액연금보험 추가가입=진씨는 65세를 경제적 은퇴연령으로 생각하고 있

다. 흔히 은퇴라고 하면 정년퇴직을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의미에서 은퇴란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즉, 가정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수익활동 없이 여가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시기를 말한다.

그렇다면 두 부부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 매달 200만원의 생활비가 든다고 할 때 물가상승률 3.5%, 은퇴 후 투자수익률 5% 적용을 경우 25년간 약 1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65세때 10억원을 금융기관에 5%의 금리로 예치해놓고 매달 현재 가치로 200만원(65세 시점 미래 가치 397만원)씩 인출해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때 25년간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의미다.

물론 불변의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씨의 경우 일부는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으로 노후자금을 충당한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부족하다. 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달 약 200만원씩 65세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물가상승률 3.5%, 투자수익률 7% 가정시)해야 한다. 하지만 불입증인 변액유니버설보험과 변액연금을 감안하면 100만원씩만 추가로 변액연금보험에 불입하면 노후자금은 어느 정도 준비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영업·모임·모집
시설금융·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 (062)220-0524
• 직통:(062)227-9600
• FAX:227-9500

행운공인증개사
(신포면 공동 혁신도시 정문앞)

주